

특별기획



김제 광활 감자 본격 출하

김제시 광활 명품 감자가 지난 24일 첫 수확을 시작으로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다.

김제시 광활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는 잦은 비와 눈 추위 등 기상여건이 좋지않아 전반적으로 식재시기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감자농가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극복하고 햇감자를 수확하게 됐다.

김제시 광활면에서 생산되는 명품감자의 인기는 무엇보다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 논이 풍부한 미세탈과 겨울동안 쉬지 않고 노력한 농가들이 하나되어 명품감자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다.

김제시 광활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겨울 시설감자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어 농촌의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농민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첫 수확을 한 장제리 용심마을 박창갑(70세)씨는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기상이 좋지않아 고생을 했지만 수확량은 생각보다 많은 편이고 도매시장에서 좋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공무원 나무심기 행사

김제시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들은 제7회 식목일(4월 5일)을 앞두고 지난 25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기관 단체장과 시민 등도 함께한 이날 참여자들은 배영고등학교 뒤 편 입야(흑암동 산 67번지)에 편백나무 1천200본을 심었다.

시는 "식목일을 앞두고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자연친화적 생태·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나무심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읍시립조합(조합장 김민영)은 행사장 주변에서 감나무와 매실나무, 대유식물 등 총 2천본의 묘목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 범시민적 나무심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제시 시장은 "숲은 기후 변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지구, 꿈과 희망이 있는 정읍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봄철 나무심는 시기를 맞아 총 55ha에 백합나무 등 속성수와 경제수 편백나무 등 13만2천본을 심어 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경찰, 이평면 치안설명회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25일 오전 각 과장들과 함께 이·통장회의 예정인 이평면사무소를 방문, 마을이장 등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시민공간 안심차안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가졌다. 치안설명회는 각목마을 이장 김석훈, 자율방범연합회 이평지대 왕순복, 자율방범연합회 이평여성지대 임숙희씨 등 3명이 감시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경찰활동사항, 간담회 순으로 진행하였는데 특히 C전북방송에서 '공감뉴스' 진행으로 4대아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정읍의 소식을 매우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주원 정읍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하는 주민공감 안심 치안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장산 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출범식이 4월 1일 오후 2시 정읍역 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내달 1일 '내장산콜택시' 출범

정읍시, 번호(☎063-531-1000)와 운영규정 확정·비영리법인 등록 마쳐

내달 1일 정읍시 브랜드 콜인 '내장산 콜택시'가 본격 출범한다. 시에 따르면 내장산 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용)가 주관하는 출범식이 당일 오후 2시 정읍역 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식전행사로 농악 공연이 펼쳐지고 거리 퍼레이드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한층 더 향상된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 관련 종사자와 운송 사업자들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브랜드 콜택시 통합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이천시 외 3개시) 벤치마킹과 법인택시(10개사) 및 개인택시, 콜택시 3사 대표자 간담

회 등을 통해 내장산 콜택시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과 참여를 요청했고, 법인과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내장산 콜택시 구축사업 참여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택시 관계자 및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내장산 콜택시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심의를 거쳐 콜 명칭 및 번호(☎063-531-1000),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다.

또 참여자 모집 일환광고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LG+와 내비게이션 등 장비에 대한 협상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정읍시 택시 면허

대수 600대중 82.3%인 494대가 참여를 희망하고 자부담을 납부한 상태다.

이와 함께 콜 관제센터를 운영할 사무장(1명)과 상담원(8명) 선발도 마쳤고 25일 현재 센터 구축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콜 장비 등을 택시에 장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며 "정수년과 여성 등을 위한 안심게시서비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이용의 편리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수협, 만선기원 초매식 성황리 개최

격포 위판장에서 200여명 참석

어업 인의 무사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는 초매식이 지난 23일 부안수협(조합장 김진태) 격포 위판장에서 김진태 조합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어업인 및 수협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초매식에서 김진태 조합장은 "무엇보다 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어민 모두가 어획량이 늘어나 부자가 되도록 부안 수협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조합장은 또 "어업 인의 안전과 건강을 당부드리며 풍요와 만선의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하고 잘사는 어촌 활기찬 어촌이 되도록 어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영농안정기금 지원

50억원 연리 1%

부안군이 영농안정·소득증대 등 농업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고 농업인용 대상으로 영농안정기금 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가지원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군내 135개 농가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지원된다.

특히 군은 영농안정기금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금리는 농가부담 2%에서 1%로 낮춰 농가부담을 줄였으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지난해

3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지난해 50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영농안정기금은 시설자금과 영농자재, 농지 및 농기계 구입, 유통기공시설 등 농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용환 농업경영과장은 "이번 영농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농안정과 소득증대 효과 등 농업인이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누릉지·올금분말 등 먹거리와 공예품 선봬

김제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관내 우수 업체인 '금싸라누릉지, 성림오앤에프, 서릿갈농원, 징계쟁이들'이 참가하여 관내 우수 농·특산물과 공예품을 전시, 홍보, 판매했다. 김제평야에서 재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이용한 누릉지와 올금분말, 가시오가피·복분자 효소 등이 출품되었으며 도자기, 한지·짚공예, 천연염색도 참가 우수 공예품도 선보여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 개최는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11개 지역신문사들의 홍보 및 기획 기사를 통해 우수한 지역 식품과 공예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바이어 상담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 시식회, 식품관련 교육 및 공연 등 식품생산지본 아니라 소비자들도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성림오앤에프 대표 표우철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장으로 우리 농가를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양운연 유통식품과장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와 직결되는 박람회의 효과는 의외로 크다"며 "향후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봄맞이 환경정비

김제시가 봄을 맞아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해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로 거듭내기위해 지난 25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김제시는 쓰레기 담배꽂초 등 무단투기 하지 않기, 음식물 줄이기, 내 집 앞 청소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해 매월 둘째, 네째주 화요일에 거리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 관내에 냉동, 제빙 및 종합가공공장을 운영하여 지역 특산물인 뽕잎을 이용한 수산물가공으로 지역 경제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일익을 하고 있다.

이후공사 동진 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각급사회봉사단체, 초중고학생, 공무원 등 3,000명이 참여해 생활주변 및 하천 농수로 등에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였다.

전기택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국토대 청결을 통해 도심 내 묵은 쓰레기 일제수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각 가정에서도 발생하는 쓰레기의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없음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bdi Wine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94-9960  
www.gangsanwine.com